

김 장

김 민(시인)

파 마늘 고춧가루 생강 젓갈
김치 하나면
한 고봉 흰 쌀밥
게 눈 감추듯 먹어 치우는 반찬

삼신애비 만들어 준 두 손가락 저분으로
없어 먹어 푸짐하다
이웃 품앗이로 큰 잔치이다

지금은 세계의 명품
정성 드려 만들었는데
좀 더 포근한 아양을 못 떨고

친구 며느리가
김치에 황석어젓이 들어간다고
현관 밖에
들여놓지도 못하게 팽개친다

배추나 무 따위를 소금에 절였다가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따위의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버무린 뒤 발효시킨, 우리나라 고유의 저장 식품인 김치를 겨우내 먹기 위하여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많이 담그는 일이 김장이다. 이제는 식생활의 개선이나 서양 식품이 들어와 그 아성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한식을 선호하며 명품으로 손을 꼽고 있으니 웬 말인가, 달라지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기만 하다.

김장을 하는 날은 이웃품앗이로 큰 잔치였는데 요즘은 황석어젓이 들어갔다고 현관 안에 들여놓지도 못하게 한다. 그저 나이든 사람들이나 추억을 되새기며 몇 포기씩 해서 입맛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상의 지혜로운 음식을 보존하며 즐겨야 후손이 아닐까?(윤제철)

산골 부부의 떠남

이종만(수필가)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웃 K선생 부부가 뜻밖에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다. 전직 교수로 알려진 K선생이 이전에 혼자 또는 동부인하여 우리 거처를 찾아온 적은 없었다. 처음이 마지막이 되는 상황! 말문이 막힌 우리 부부에게 두 사람은 ‘산야초효소 동의보감(도감)’ 등 책 4권, 오미자 화분 1개, 씨앗 봉투 5개를 작별 선물로 건넸다.

우리 부부가 이곳 산골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지난 작년 5월 초, 산책하러 집에서 나오는 K선생 부부와 첫 대면했다. 퇴촌 생활 10년차라며 부부가 밝게 웃었지만, K선생은 신체가 약했고 부인은 병색이 완연했다. 그때, 아내가 K선생 댁 담장 위로 보이는, 한 덩굴 식물(오미자)을 가리키며, “무슨 꽃이 저리 아름답습니까?”하고 물었다. 그들 부부는 그때 나눈 얘기를 잊지 않고, 중심 줄기가 3m가량 자란 오미자를 작별 선물로 준비한 것이었다.

K선생 댁은 우리 거처에서 길로는 300여 m이나 직선거리는 80여 m에 불과하다. K선생 댁 근처에는 우리 부부의 롤 모델인 ‘노신사 부부’가 산다. 우리 부부는 ‘노신사 부부’와는 자주 왕래하며 가까이 지냈으나 K선생 부부’와는 그렇게 지내지 못했다.

K선생 부부는 대체로 오전에 집을 나서 오후 늦게 돌아오는 듯했다. 나와 아내는 새벽 산책길에 부부와 서너 번 마주치면서, 그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K선생 부인이 작년 봄엔 모종 약간을, 가을엔 ‘백초효소(百草酵素)’ 한 병을, 며칠 전엔 산 달래를 한 움큼 가져왔다. 아내도 서너 차례 자연 농산품 몇 가지를 들고 가 K선생 부인과 차담을 나누었다.

이삿짐 트럭 출발을 앞두고 10여분, K선생 부부와 우리 부부는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이웃이어서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지 못한 만큼 부족했다고 하자, K선생이 말을 이었다.

“저희 탓입니다. 25년 전, 저는 생사의 기로에서 병원치료와 모든 사회생활을 접었습니다. 저를 보살피려 아내는 약국까지 접었는데 15년쯤 지나서는 아내가 말기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강원도 정선으로 들어간 이래 퇴촌 생활까지 도합 25년을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생활 패턴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식물을 기르는 일, 식이요법과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운 좋게도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이만큼 회복했습니다만 이제 산골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전원주택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이 벅잡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도회에 가시면 산골이 그리우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대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산을 찾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주차하고 그늘 막에서 쉬어가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이곳이 그리우시면 어느 때라도 찾아주시기를, 혹 저희가 부재중이라도 대문은 열려있으니 주차장과 그늘 막 등을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주먹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 부부가 탄 승용차와 이삿짐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좋은 이웃과의 헤어짐이 실감났다. 가슴 속 어딘가에 통증이 느껴졌다.

25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새 삶을 얻은 그들은 산골을 떠나며 무엇을 남겼을까? 부부가 애써 꾸민 집과 가꾼 정원수들은 주인을 잃은 채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부부가 준 책 들은 내 서재에, 오미자와 씨앗들은 여기 정원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 부부의 가슴속에 K선생 부부의 좋은 이미지와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 부부도 언젠가는 여기를, 이승을 떠날 날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뒤에 남을까? 아내가 틈틈이 심어온 철쭉과 수국이라도 철따라 피어있을까?